

조선후기 《西廂記》 감상사전 《艷夢漫釋》의 이본 현황 및 자료적 특징*

金曉民**

< 목 차 >

1. 들어가며
2. 이본 현황 및 계열화
 - (1) A계열본
 - (2) B계열본
3. 내용상의 특징 검토
4. 成書 관련 문제들
5. 소통적 관계의 자취
6. 맺음말

1. 들어가며

《서상기》는 조선시대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중국 통속문학 작품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오랜 세월이 걸쳐 널리 애독되면서 중국본은 물론이고 다양한 형태의 조선인 주해본과 언해본이 생겨났으며, 지금까지도 그 상당수가 전하고 있어 과거 조선인의 '서상기독서열'을 엿보게 해준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상기》에 나오는 어구를 풀이하여 별책으로 유통되면서 작품 이해와 감상을 보조했던 語錄解類 역시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어 연구자의 관심을 끈다. 현재 확인되는 《서상기》 어록해류로는 비교적 잘 알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1017793).

** 高麗大學校 世宗캠퍼스 中國學部 副教授

져 있는 <西廂記語錄>을 비롯해 본고에서 살펴볼 《艷夢漫釋》, 그리고 《西廂記小註別傳》 등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그룹이 존재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조선시대 《서상기》 읽기는 여타 통속문학 작품과는 비교되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으며,¹⁾ 그런 점에서 이들 어록해류는 국내 《서상기》 읽기, 나아가 중국통속문학 수용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되고 있다.

그 중 <서상기어록>에 관해서는 최근 중문학연구자들이 본격적인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²⁾ <서상기어록>은 몇 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그 중 하나가 다른 어록해들과 달리 목판본으로 간행되어(한남서림, 1919) 더 대량으로 전파되고 다량 현전하는 까닭에 문학연구자들의 관심을 먼저 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상기소주별전》의 경우, 현재로서는 필사본 3종³⁾밖에 확인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던 유형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런 만큼 연구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염몽만석》은 간행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조사 결과 지금까지 총 12종⁴⁾의 필사본이 확인될 뿐 아니라, 다른 어록해에서는 볼 수 없는 조선인 서문까지 남아있으며 수록된 정보량도 <서상기어록>에 비해 훨씬 더 많아서

-
- 1) 어록해류가 남아 있는 통속문학 작품으로는 소설 《삼국지연의》와 《수호전》, 《서유기》가 있는데, 그 어록해들은 모두 하나의 단일한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서상기》의 경우 희곡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어록해가 남아 있는 작품인 데다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어록해를 남기고 있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 2) 민관동 교수가 <西廂記의 국내 유입과 판본연구>(《중국소설논총》 제31집, 2010)에서 《서상기어록》의 판본 현황에 관해 소개한 데 이어, 윤지양의 <筆寫本 <西廂記語錄>의 分類 및 各筆寫本의 特徵 考察>(《중어중문학》 제50집, 2011, 12.)에서 필사본 7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 3) 충남대본과 국민대본, 그리고 국민대본과 사실상 동일한 개인소장본(고서 연구가 박철상 소장, 이전 통문관 소장 6책본 《서상기》 언해본의 제5책) 등 3종. 국민대본은 6책본 언해본 《西廂記》 가운데 제5책임(다음 절 <표>의 [A3] 참고). 개인소장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김영진, 《조선후기 明清小品의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 양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130쪽. 및 김효민, <‘이가원본’을 통해 본 조선후기 《서상기》 한글번역의 수용과 변용>, 《중국어문학지》 40권, 2012. 9. 151쪽 참고.
 - 4) 총 12종 가운데 각주 4)에서 언급한 개인소장본의 제6책이 아래 <표>의 [A3]와 사실상 동일한 이본이 분명하나, 필자가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일단 본고의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실 가장 주목받아야 마땅한 《서상기》 어록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자료적 실상에 관해서조차 이렇다 할 만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⁵⁾

이에 본고에서는 기초적인 연구로 지금까지 조사한 필사본 《염몽만석》 11종의 이본 실태와 그 자료적 성격 및 특징을 개관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염몽만석》 및 기타 관련자료들을 통해 얻어진 정보와 실마리들을 토대로 불완전하게나마 그 成書 관련 문제들, 나아가 조선후기 《서상기》 수용에 있어 《염몽만석》이 가지는 의미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2. 이본 현황 및 계열화

필자가 조사한 11종의 필사본 《염몽만석》은 각 이본별로 다소 차이를 보 이면서도 형식 및 내용에 있어 서로 상당부분 교집합을 이루어 크게 하나의 어록해 그룹으로 분류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이본별 대조 결과 일부 이본은 주해의 詳略과 몇몇 형식적 특징을 기준으로 볼 때 단순히 하나의 큰 그룹으로 묶기에는 나머지 이본들과 너무 큰 차이를 보여 다시 두 개의 하위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상대적으로 주해가 간략하고 해당 형태의 成書時期도 더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9종의 이본을 'A계열'로, 주해가 상세하고 성서시기도 늦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이본 2종을 'B계열'로

5) 20여 년 전에 국어학자 박희숙 교수가 개인소장본 《염몽만석》 1종을 대상으로 구결표기 연구를 한 사례가 있는데(<《艷夢漫釋》의 口訣에 대하여>, 《제효이용주박사회갑기념논문집》, 한샘, 1989. / <《艷夢만석》의 口訣에 보이는 '句'字에 대하여>, 《명지어문학》 19, 1990. 6), 이것이 《염몽만석》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은 선행연구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외로는 최근에 와서야 김효민의 <朝鮮讀本《西廂記》의 異本 실태 및 유통 양상>(《중국어문논총》 제46집, 2010)과 윤지양의 앞의 논문에서 각각 《염몽만석》의 존재에 관해 부분적으로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 정도이다. 필자는 최근 그간 거의 알려지지 않은 몇 종의 《염몽만석》의 존재를 추가로 확인하게 되면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분류하기로 한다. 그리고 각 이본을 추정연대와 중요도, 상호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순서대로 기본적인 형태서지를 먼저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엄몽만석>> 이본 현황>

구분	권수제 / 표제	부제1 / 부제2	형태사항	저자사항	특기사항	소장처
A1	• 艷夢漫釋 • 艷夢抄解	없음	• 필사본 1책 (50장) • 26.3×17.2	• 守實先生 註釋 • 儼山主人 叅校	• 권두에 <艷夢漫釋> • 권말 필사기 “己未(1859) 季冬 樂溪偶書”	단국대 연민기념관
A2	• 集英觀紺珠 • 紺珠	• 西廂記諺注 集解	• 필사본 1책 (85장) • 32.5×21.5 • 有界	• 儼山 著	• 권말에 <艷夢漫釋> • <華語類腋> 등 기타 4종의 어록과 합철됨	종로도서관
A3	• 集英觀紺珠 • (西廂記單) 諺注解	• 西廂記諺注 集解	• 필사본 1책 (44장?) • 21.0×15.0	• 儼山 著	• 6책본 <西廂記> 언해본 의제6책임. • 제1-4책은 <서상기> 언해 • 제5책은 <西廂記小註別傳>	국민대 도서관
A4	• 艷夢漫釋 • 艷夢漫釋	• 西廂記句讀 • 語錄註解	• 필사본 1책 (52장) • 20.0×14.0	• 守實先生 註釋 • 儼山主人 叅校	• 권두에 <艷夢漫釋> 및 <讀法抄略>, <詞名>	서울대 규장각
A5	• 西廂記句讀 • 艷夢漫釋說	• 艷夢漫說 • 語錄註解	• 필사본 1책 (26장) • 24.0×18.0	• 守實先生 註釋 • 儼山主人 叅校	• 권두에 <艷夢漫釋> 및 <讀法抄略>, <詞名>	고려대 도서관
A6	• 艷夢漫釋 • 西廂記語錄	• 西廂句讀 • 語錄註解	• 필사본 1책 (50장) • 23.6×15.7	없음	• 권말 필사기 “己亥(1899) 踏靑日畢寫于	이화여대 도서관

			•有界		霞西別墅... •청색 계선이 인쇄된 근대 개량한지에 필사	
A7	•艷夢漫釋 •艷夢漫釋	없음	•필사본 1책 (57장) •23.9×19.0 •烏絲欄	•守實先生 註釋 •儼山主人 參校	•속편까지 주해 •권말에 부록 주해	성균관대 존경각
A8	•艷夢漫釋 (표지 유실)	없음	•필사본 1책 (48장) •23.9×17.5	•守實先生 註釋 •儼山主人 參校		영남대 도서관
A9	•艷夢漫釋 •艷夢漫釋	없음	•필사본 1책 (39장) •27.0×18.0	•守實先生 註釋 •儼山主人 參校		강릉 船橋莊 (개인소장)
B1	•艷夢漫釋 •艷夢漫釋	없음	•필사본 2권1책 (47장) •28.8×18.5 •有界	•守實先生 註釋 •儼山主人 參校 •瑣谿舊漁 考訂	•권두에 <艷夢漫釋說>	하버드 엔칭도서관
B2	•艷夢漫釋 •艷夢漫釋	없음	•필사본 2권1책 (44장) •32.2×20.6 •烏絲欄	•守實先生 註釋 •儼山主人 參校		충남대 도서관

이제 각 이본들의 특징을 순서대로 소개하되, 서술상의 효율과 편의를 위해 상호 친연성이 있는 이본들의 경우 두셋씩 함께 연관 지어 설명하기로 한다.

(1) A계열본

1) [A1] (단국대본)

<<염몽만석>>의 전사본 가운데 하나로, 현존 이본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

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조본에 가장 가까운 형태가 아닐까 생각된다. 정자로 또박또박 필사되어있으며 보존상태도 상당히 양호하다. 표지에는 '艷夢抄解 奎'이라 쓰여 있으며 권수제가 '艷夢謾釋'이다. 권두에는 조선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서문 <艷夢謾譯說>이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 "己未[1859]季冬 樂溪偶書"라는 기록이 있으며, 이로써 보건대 19세기 중반에 '낙계'라는 호를 쓰는 인물 1인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서상기》 원문과 주해 대상 표제 어구는 큰 글씨로, 그에 대한 한문 위주의 국한문혼용 주석은 소자2행으로 필사했는데, 이러한 표기 형태는 나머지 이본들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권두에 권수제 아래 "守實先生 註釋, 儻山主人 叅校"라고 명기되어 있어 '수실선생'이 주해작업을 하고 '당산주인'이 교정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저자사항이 다른 여러 이본에서도 두루 확인되는데, 서문과 책의 내용으로 보아 두 인물 모두 조선인으로 추정되나 현재로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관해서는 4절에서 좀 더 보충하기로 한다.

A계열본의 중요한 형식적 특징은 작품의 내용 순서에 따라 주해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각각의 曲文들이 단락 구분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곡문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여러 이본에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는 구결이 들어갈 구절의 마지막 글자에 약자체 구결로 현토만 한 간략표기 형태이다. 그런데 유독 [A1]만 곡문 전체를 온전히 수록하고 행간에 구결표기를 하여 주석을 참조해가며 곡문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런 점에서 이 이본은 사전적 성격과 곡문감상용 텍스트로서의 성격이 결합된 이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염몽초해'라는 표제도 이 이본이 '염몽만석'이란 제목의 어록해류 가운데서도 《서상기》의 곡문 부분을 초록하고 그에 대한 주해를 곁들였다는 이본적 특징을 드러낸 것으로 여겨진다.⁶⁾

www.kci.go.kr

6) 이상 《염몽초해》의 이본적 특징에 관해서는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 해제집》(민속원, 2012) 중의 김효민, <艷夢抄解>(3장 8절) 참고.

2) [A2] (종로도서관본), [A3] (국민대본)

[A2]는 A계열본 가운데서는 판형이 유독 크며, 판심에 상화문어미가 있고 검은색 계선이 인쇄된 공책에 필사한 이본이다. 아주 반듯하게 정서되어 있어 필사에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며, 책 앞뒤 가장자리에 좁이 슨 흔적이 약간 있으나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특이하게도 ‘集英觀紺珠’라는 권수제를 쓰고 있으며, 표제도 ‘紺珠’라고 되어 있다. 이런 제목을 쓴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치는 않으나 대략 알아야 할 주옥같은 표현들을 모았다는 의미가 아닐까 한다.⁷⁾ 권수제 다음 행에는 일종의 부제로 ‘西廂記諺注集解’라고 명기하여 어록해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저자사항과 관련해서는 [A1] 등 여러 이본에서 주해자로 명기한 ‘守實先生’이란 이름은 보이지 않고 ‘儺山著’라고만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이본들에서 교정자로 되어있는 ‘儺山主人’을 주해자로 명기한 것이라 생각된다. 서문의 경우 권두에 수록하지 않고 본문 뒤에 붙였는데, 이처럼 서문을 뒤에 둔 것은 모든 이본 가운데 [A2]가 유일하다. 그런데 서문 제목이 ‘艷夢謾講說’이고 서문을 쓴 ‘守實過客’이 곧 주해의 주체인 ‘수실선생’이 분명해 보인다는 점에서 권두의书名 사항이나 저자사항과 불일치를 보이며, 서문이 뒤에 놓이게 된 것도 이 같은 불일치와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무튼 이러한 불일치 현상은 조본에서부터 연유된 것이기보다는 [A2]나 그 저본의 전사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난 변화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A2]의 또 다른 큰 특징은 다른 이본들과는 달리 《염몽만석》 뒤에 기타 어록해 몇 종이 합철되어 있다는 점이다. 합철된 내용은 순서대로 <華語類腋>, <佛家語叢>, <道家語叢>, <朱子語錄解> 등으로, 여러 종의 어록해를 모아 간행한 《주해어록총람》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형태의 여러 《어록

7) ‘紺珠’는 만지면 잊었던 일을 환히 기억나게 해준다는 전설상의 구슬로, 많은 것을 기억함을 비유하거나 기억을 돕는 사물을 가리키기도 한다(《漢語大詞典》). 한편, [A2]는 서울 시교육청 전자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집영관 감주’라는 서명으로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해》 필사본의 구성을 연상케 한다. 이 같은 구성을 [A2]의 표제나 권수제와 연관지어 보면 《염몽만석》이 《서상기》 이해와 감상을 위한 사전적 성격의 참고서이자 더 나아가 그 자체로 하나의 학습용 텍스트로서 기능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갖게 한다.

한편 [A3]는 6책본 언해 《서상기》 가운데 제6책으로, 對譯式 언해본에 일종의 별책부록 형태로 함께 묶인 경우이다. 각주 4)에서 언급한 개인소장본의 경우도 [A3]와 사실상 동일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염몽만석》은 종종 이와 같은 형태로 유통되기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A3]는 [A2]와 형태적으로 다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함께 거론하는 것은 권수제와 부제가 서로 같고, 저자 사항 역시 동일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수록된 내용도 사실상 일치한다. 이로써 보건대 [A2]와 [A3]는 A계열본 가운데서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A3]는 [A2]와는 달리 서문이 수록되어있지 않으며, 그러다 보니 [A3]에서는 ‘염몽만석’이라는 명칭 자체를 찾아볼 수 없기도 하다. 필사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A2]에는 미치지 못하며 오탈자도 적잖게 발견되어 이본으로서 가치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A4] (규장각본), [A5] (고려대본), [A6] (이화여대본)

[A4], [A5], [A6]은 서로 다른 면도 적지 않지만, 수록된 주해 내용이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는 점 외에도 書名 사항에서 일치와 유사점을 보여 함께 묶어 소개한다. 세 이본은 모두 다른 이본들과는 달리 권수제 다음에 행을 바꿔가며 2개씩의 부제를 명기하고 있으며, 그 중 두 번째 부제가 모두 ‘語錄註解’로 동일하다. 또 [A4]와 [A6]는 제1부제로, [A5]는 권수제로 쓴 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다른 이본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西廂記句讀’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점도 동일하다. 이처럼 타 이본들에서는 볼 수 없는 공통점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세 이본은 계통적으로 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이들 이본 각각의 특징적인 면모를 차례로 소개한다. 먼저 [A4]는 권두에 서문이 있고 뒤이어 金聖歎의 <讀西廂記法>의 일부인 <讀法抄略>을 수록하고 있으며, 주해 본문 서두 부분에 《서상기》에 실린 曲牌의 총목에 해당하는 <詞名>을 수록하고 있다. <詞名>에는 續篇이라 불리는 제5본의 곡패까지 모두 열거하였다. 또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곡문에 대한 구결 현토의 간략표기 부분 상란에는 숫자가 적혀 있다. 숫자는 김성탄이 평비를 달면서 절을 구분하기 위해 매긴 일종의 단락 번호에 해당한다.⁸⁾ [A4]는 이처럼 다른 이본과는 다소 다른 내용적, 형태적 특징을 갖추고 있는 면이 있으나, 필사나 제책 상태 등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A5]의 경우 표제를 서문 제목과 똑같이 ‘艷夢漫譯說’이라고 붙였는데, 표제를 이렇게 단 이본은 [A5]가 유일하다. 참고로 표지에는 또 ‘藏于楓溪書屋’이라는 소장사항이 명기되어 있다. 권두에 서문이 있고 뒤이어 <讀法抄略>과 <詞名>을 수록한 점이 [A4]와 기본적으로 같으며,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수록하고 있는 것은 두 이본뿐이다. 다만 [A4]와는 달리 <讀法抄略> 마지막에 제5본 續篇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담은 조목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고, <詞名>의 경우 그 필사된 위치나 곡패의 배열순서가 [A4]와 다소 다르며 [A4]와 달리 속편의 곡패명은 수록하지 않았다. [A5]의 또 다른 특징은 곡문 부분의 구결 현토 간략표기 자체를 일체 수록하지 않고 단지 곡문을 나타내는 동그라미 속의 숫자만 행간에 표시하여 단락 구분표지로 삼고 있을 뿐이다. 이런 형태로 단락 구분 표시만 한 이본도 [A5]가 유일하다. 이 점에서 곡문 부분의 구결현토 간략표기조차 수록하지 않았는데도 권수제를 ‘西廂記句讀’라고 한 것은 의아스런 일이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 [A5]는 사실상 주해만 수록한 셈이어서 전체적인 편폭도 모든 이본들 가운데 가장 적다.

[A6]은 표제를 ‘서상기어록’이라고 명기한 유일한 이본으로, 표제만 봐서는 《주해어록총람》의 <서상기어록> 등과 혼동하기 쉬우나 실제 수록 내용은

8) 상란에 숫자 없이 동그라미만 표시한 경우는 김성탄 평비에서 단락 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곡문 부분에 해당한다.

《염몽만석》이다. [A4]와 [A5]는 모두 저자사항을 “守實先生 註釋, 儼山主人 叅校”라고 명기하고 있는 데 비해, 무슨 이유에서인지 [A6]에는 저자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서두 부분에 <篇名>이라는 소제목 하에 《서상기》 각 절의 2자 章名이 속편부분까지 나열되어 있다. 이처럼 <편명>을 수록한 이본은 [A6]외에는 [A1]밖에 없다. 다만 [A1]은 필사 형식이 다소 다르고 속편부분은 생략한 점이 상이하다. [A6]는 판심에 상어미가 있고 청색 계선이 인쇄된 근대식 종이에 필사했는데, 필사의 오류가 적잖게 발견될 뿐 아니라 후반부는 필사상태도 좋지 않다. 다만 권말에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의 필사기가 있는 점이 주목된다. 우선 그 앞부분에서 “己亥踏靑日畢寫于霞西別墅”라고 한 것으로 보아 필사를 마친 시기는 1899(己亥)년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어서 필사자가 지인으로부터 필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 수락했으나 건강 문제로 중단했다가 결국 무리를 해가며 필사를 마쳤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런데 필사기에서도 이 텍스트를 가리켜 “서상기어록”이라고 하고 있어 당시 《염몽만석》이 그렇게 불리기도 했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4) [A7] (존경각본), [A8] (영남대본)

[A7]과 [A8]은 양자 간에 특별한 일치점이나 상호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나 양태적으로 유사한 면들이 적지 않아 함께 소개한다. 두 이본은 A계열본 간에 서로 거의 일치하는 교집합으로서 주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것 외에도 상당량의 주해가 부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물론 주해를 부가한 형식이나 그 내용은 서로 다르다. [A7]의 경우는 권말에 속편에 대한 주해를 수록하고, 뒤이어 <追錄>이라는 제목 하에 추가적인 한문 주해를 제4본 <驚夢>까지 각 장별로 상당량을 수록하고 있다. 속편에 대한 주해는 모두 한문 주해이며 분량도 많지는 않으나 모든 이본들 가운데 [A7]에만 수록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뒤이어 부록의 형태로 추가적인 주해를 수록한 것도 다른 이본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이에 비해 [A8]의 경우는 부가적인 주해가

A계열본에 공통된 주해들 사이나 행간에 간간이 필사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는 [A8] 필사자가 A계열본에 공통된 주해를 저본에 따라 필사하는 가운데, 보충할 주해를 중간 중간 추가해 넣은 것으로 보인다. 그 중 A계열본에 공통된 주해들에 뜻풀이만 추가하는 경우는 대부분 행간에 필사하였고, A계열본에 공통된 주해들에는 보이지 않는 표제어를 추가하는 경우는 대체로 행 안에 정식으로 필사한 형태를 보인다. 부가된 분량은 전체적으로 [A7]에는 미치지 못하나 결코 적은 양은 아니다.⁹⁾ 한편 [A8]에 부가된 주해는 순한문이 아니라 한글풀이도 상당수 섞여있어 [A7]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¹⁰⁾

두 이본에 부가된 주해들에 관해 좀 더 부연하자면, [A7]의 경우 그 표제어들이 거의 典故 위주의 文語 어휘들인 데 비해, [A8]의 경우 문어와 구어 어휘가 골고루 섞여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한문 주석의 출처는 두 이본 모두 그 절대다수가 김성탄 평비본 <서상기>(이하 ‘<김서상>’) 계열 가운데 乾隆 47년(1782)에 처음 간행되어 여러 차례 번각되면서 널리 전파되었던 鄒聖脈(1691-1762) 安註本¹¹⁾의 주석인 것으로 확인된다. 곧 상당수 한문주해가 추성택의 주석들을 그대로, 또는 축약 형태로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자면 두 이본은 그 부가된 한문주석의 주요 출처를 공유하고 있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갖는다. 한편 [A8]에 부가된 주석들은 또 뒤에서 소개할 B계열본과 상당부분 유사한 면모를 보여 관심을 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한편 두 이본의 기타 기본적인 사항들에 관해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두 이본 모두 서문은 수록하지 않았고, [A8]의 경우 겉표지가 유실되어 표제는 확

9) 추가된 주해는 기존 주해에 풀이만 추가한 경우들까지 포함해 총 171건으로 확인된다.

10) 이처럼 상당량의 주해가 부가되어 있음에도 이 두 이본을 별도의 계열로 구분하지 않은 것은 A계열본의 교집합으로서 주해의 틀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사실상 그대로 수록하는 가운데 그 사이사이, 또는 그 뒷부분에 다른 주해들을 단순히 추가한 형태를 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A7]과 [A8]이 서로 유사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들을 별도의 한 계통으로 함께 분류할 만큼의 특별한 일치점이나 친연성을 찾기 어려운 것도 그 한 이유이다.

11) <김서상>의 기초 위에서 일반 독자들을 위해 주석을 가한 판본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의 하나이며 “繡像安註第六才子書” 또는 “樓外樓訂正安註第六才子書”라는 제목을 썼다.

인되지 않으나 권수제(艷夢謾譯)와 저자사항(守實先生 註釋 / 儼山主人 叅校)이 [A7]과 일치한다. 또 두 이본 모두 곡문에 대한 구결현토 간략표기를 수록하고 있으나 단락번호 표기는 하지 않았다.¹²⁾

5) [A9] (선교장본)

[A9]는 강릉선교장 민속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중소장본으로, 자유로운 열람이 어려워 필자가 아직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때문에 여기서는 각주 6)에서 언급한 박희숙 교수의 논문에 수록된 서지정보와 영인자료만을 바탕으로 간략히 소개한다. 박희숙 교수는 [A9]를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의 필사본으로 추정했는데, 그 추정이 맞는다면 여러 이본들 가운데 상당히 이른 시기의 이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확증이 어렵고, 또 박 교수의 논문에 드러난 정보로 볼 때 여타 A계열본과 함께 묶어 소개할 만한 특별한 친연성을 찾기 어려워 일단 마지막 순서에 따로 놓았다. [A9]는 권수제와 표제가 모두 '艷夢謾譯'으로 동일하고 부제는 보이지 않으며, 저자 사항은 다른 여러 이본에 보이듯 '守實先生 註釋 / 儼山主人 叅校'라고 명기하고 있다. A계열본에 공통된 주해를 수록한 것 외에 서문 등 기타 부가 자료나 정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곡문에 대한 구결현토 간략표기를 수록하였으며, 그 상란에는 단락번호를 표기하고 있다. 단정한 해서체로 필사하였고 보존상태도 깨끗한 선본이라고 하나, 제14절 <拷艷> 이후로는 후대인의 필적으로 행간 여백에 《서상기》 원문이 어지럽게 적혀있다고 한다.¹³⁾

12) 한편 [A8] 속지에는 필사자가 중국간본 《서상기》의 凡例 부분에서 초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2조목의 한문글귀가 적혀있다. 하나는 《서상기》의 언어적 특징에 관해 언급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중국어 구어(방언, 속어) 글자들에 대한 소개이다. 그런데 이 글귀가 어느 간본에서 온 것인지, 중국본 내용을 그대로 필사한 것인지는 확인이 어렵다.

13) 박희숙, <《艷夢謾譯》의 口訣에 대하여>, 295-297쪽, 314-317쪽 참고.

(2) B계열본

B계열본에 속하는 이본은 현재까지는 [B1](하버드본)¹⁴과 [B2](충남대본) 두 종밖에 확인되지 않으며, [B1]과 [B2]는 수록 내용이 거의 같아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본이라 할 수 있다. B계열본이 A계열본과 다른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주해 자체가 현저히 많다는 것이며, 그밖에 세부적인 서지사항에 있어서도 일련의 차이를 보인다. 상략에 있어서 B계열본은 A계열본의 교집합으로서 주해의 상당부분을 공유하면서 그보다도 많은 주해를 추가로 수록하고 있다. 주해가 추가된 형태도 [A7]이나 [A8]처럼 A계열본의 교집합으로서 주해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그 사이사이에 일부 주해를 추가하거나 권말에 부록으로 추가한 것과는 다르다. 그보다 훨씬 많은 주해가 <서상기> 내용 순서에 따라 다량으로 혼입되어 편집의 틀 자체가 전혀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또 A계열본에 보이는 곡문 원문이나 곡문에 대한 구결현토 간략표기, 곡문 단락번호 표기 등을 일체 수록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이다. AB 두 계열 간 표제어 수량의 차이를 [A1]과 [B1]을 기준본으로 하여 살펴보면, [A1]이 862개, [B1]이 1,208개로 [B1]이 약 40%정도 많다. 이번에는 주해의 양적 차이를 단순비교해보자면, 서로 행자수가 유사한 [A5]와 [B1]을 기준으로 주해 부분의 총 면수를 비교했을 때 각각 39면과 87면으로 [B1]이 2배 이상 많다.¹⁵ 표제어 수의 차이에 비해서 전체 면수의 차이가 이처럼 큰 것은 B계열본이 A계열본에 비해 길고 상세한 주석들이 많으며, 또 A계열본과 공유하는 기존 주해에 풀이내용만 증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편폭이 길어진 때문인지 [B1]과 [B2]는 모두 上下 2권으로 분권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분권을 한 것도 A계열에서는 볼 수 없는 B계열만의 형태적 특징이다. 또 각 챕터가 시작되는 부분의 경우, A계열본에서는 각 장의 순서와

14) [B1]은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원문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15) [A5]가 A계열본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곡문에 대한 구결현토 간략표기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수록된 정보량을 단순비교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두 이본 모두 서문이나 <독법초략> 등 주해 이외의 부가적인 요소들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자 章名만 명기하고 있는 데 비해, B계열본은 이에 더해서 차례로 宮調名과 4자 篇目, 6자 題目正名까지 명기하고 있는 점도 서로 다르다.¹⁶⁾

[B1]과 [B2]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자 모두 표제와 권수제가 ‘艷夢謾譯’으로 동일하며 부제는 없다. 저자사항의 경우 ‘守實先生 註釋 / 儻山主人 叅校’까지는 서로 같으나, 특히하게도 [B1]에만 ‘瑣谿舊漁 考訂’이라는 내용이 더 들어가 있어 차이를 보인다. 서문의 경우도 [B1]에만 수록되어 있고 [B2]에는 없다. [B1]은 판심에 상하화문어미가 있고 계선이 인쇄된 공책에 매우 정갈하게 필사하였고, [B2]는 烏絲欄을 그은 종이에 역시 또박또박 정서하였다. 주해의 내용과 편집 형식은 사실상 완전히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심지어 일부 필사가 누락된 글자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곳들도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두 이본은 계통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A계열본의 교집합으로서 주해와 구분되는 B계열본에 와서 추가된 주해에 관해 좀 더 부연해보기로 한다. 추가된 주해의 표제어는 전고 등 문어가 주를 이루면서도 구어도 적잖게 포함되어 있다. 주해의 언어형식으로 보면 A계열본의 교집합으로서 주해와 마찬가지로 한문 위주에 간략한 한글풀이가 일부 섞여 있는 형태를 보인다. 추가된 주해의 내원에 있어서 두드러진 현상은 한문주석의 대부분이 앞서 언급했던 鄭聖脈 安註本에 출전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 주석을 그대로 수용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만 수록하거나 축약 또는 다소 변형하기도 하면서 수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글풀이는 거의가 구어 표제어와 관련되어 있으며, 해당 표제어는 추성맥 타주주본에서는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이 같은 구어 표제어에 대한 한글풀이의 경우 그 상당부분이 필사본 <서상기어록>류의 그것과 일치 또는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¹⁷⁾ 이는 B계열본이 기존 <서상기어록>류의 주해를 적극 수용한

16) 일례로 제1절 시작부분을 보면 A계열본에서는 “第一節驚艷”이라고만 명기하고 있는 데 비해 B계열본에서는 그 아래 “仙侶 佛殿奇逢 老夫人開春院”이라고 덧붙여 명기하고 있다.

17) 여기서 말하는 ‘필사본 <서상기어록>류’는 20세기초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주해어록총람》 중의 <서상기어록>과는 내용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일련의 필사본들을 가

결과로 추정된다.¹⁸⁾

여기서 잠시 [A8]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A8]은 추가된 주해의 기본적인 양상과 내용에 있어서 B계열본과 상당한 유사점을 보인다. 한문 주해의 주요출처가 같을 뿐 아니라 그 중 상당수는 그 내용이 일치하기도 하며, 한글 풀이의 경우도 그 상당수가 일치 또는 유사하다. 그래서 언뜻 보아서는 [A8]이 A계열본을 저본으로 삼은 가운데 동시에 B계열본을 참조해가며 B계열본에 와서 새롭게 추가된 주해들의 일부를 중간 중간 보충해 넣은 형태로 단정하기 쉽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주해들은 B계열본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문 주해의 경우 AB계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으면서도 鄒聖脈 주석에서는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해당 부분이 추성맥 타주본을 직접 참고했거나, 추성맥 주석을 수용한 다른 어록해 또는 주해본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한글풀이의 경우는 B계열본에 추가된 한글풀이와 마찬가지로 역시 필사본 <서상기어록>류에 출전을 두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다만 참고한 저본이 B계열본의 그것과 다르고 수용 범위나 내용에 있어서도 서로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내용상의 특징 검토

여기서는 <엄몽만석>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리키며, 이본마다 차이점이 있지만 한글풀이에 있어서는 대부분 친연성을 보인다. 윤지양이 <筆寫本 <西廂記語錄>의 分類 및 各 筆寫本의 特徵 考察>에서 甲 및 乙 유형으로 분류한 필사본들이 이에 해당한다.

- 18) 한 가지 더 보충하자면, B계열본에서 각 챕터가 시작되는 부분에 명기한 4자 篇目들은 明末에 간행된 <李卓吾先生批點西廂記眞本>(崇禎 13년, 1640 간행)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중국본 가운데 <김서상> 계통 외에 명대본도 일부 참고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탁오본의 편목은 陳旭耀의 <現存明刊<西廂記>綜錄>(上海古籍出版社, 2007) 235-236쪽을 참고할 수 있다.

지를 특징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각 이본별로 출입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모든 이본에 공통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특정 계열이나 이본에서만 보이는 내용을 다룰 경우에는 해당 출처를 밝히기로 한다.

우선 ‘염몽만석’이라는 명칭에서 ‘艷夢’이란 《서상기》 제1본 제1절 <驚艷>과 소위 ‘正本’의 마지막 편인 제4본 제4절 <驚夢>의 편명에서 각각 끝글자를 따서 조합한 것이다. 이런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염몽만석》은 기본적으로 《서상기》 제4본까지의 주해만 수록하고 있다. 물론 ‘驚艷’과 ‘驚夢’ 등의 2자 章名을 차용한 것에서 벌써 드러나지만, 이는 제5본을 후인이 덧붙인 사족이라 하여 폄하한 김성탄의 영향에서 기인한 것이다. <김서상>이 국내에 유입된 이래 국내 《서상기》 독자층 내에서 그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었으며, 이는 현전하는 조선의 주해본과 언해본 가운데 <김서상>의 영향 아래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상 없다는 점¹⁹⁾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염몽만석》 역시 기본적으로 이 같은 <김서상> 계열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이루어지고 <김서상>을 감상하는 보조자료로 만들어진 텍스트인 것이다.

주해는 전체적으로 한문 위주로 되어 있으며, 일부 한글풀이도 간간히 섞여 있다. 작품이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생소할 수밖에 없는 희곡텍스트라는 점을 고려하여 권두에서는 희곡 텍스트 고유의 용어들에 대해서도 간단한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그 같은 주해의 몇 가지 보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²⁰⁾ 가령 등장인물이 무대에 오르는 동작을 말하는 ‘上云’과 같은 科介에 관한 주석을 예로 들면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上云: 上升也. 升傀儡場也. 云白也. 此所謂科白也. 餘倣此. ○傀儡東諺산디노름, 華諺희즈노름. [‘上’은 오른다는 말로, 무대에 오른다는 뜻이다. ‘云’은 말한다는 뜻으로, 이것이 소위 ‘科白’이다. 다른 부분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괴뢰’는 우리말로 ‘산대놀이’이고, 중

19) 이에 대해서는 김효민, <朝鮮讀本 《西廂記》의 異本 실태 및 유통 양상> 제3, 4장 참고.

20) 본고에서 《염몽만석》을 인용할 경우 AB계열 모두에 공통되는 내용은 [A1]을 기준으로 삼고, B계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B1]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인용문의 문장 부호 및 한글번역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국 속어로는 ‘희자(戲子)놀이이다.’) 또 궁조명인 ‘仙呂’에 대해서는 “律名²¹⁾ (음률의 이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賞花時’라는 곡패명에 대해서는 “曲名, 此所謂牌也.(노래 이름으로, 이것이 이른바 곡패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 ‘夫人唱’과 같은 창자명 표기에 관해서는 “以下文卽所謂詞也, 餘倣此.(그 아래 내용은 소위 歌詞이며, 나머지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라고 주해를 달고 있다. 매우 간략하기는 하지만, 이 같은 주해들은 희곡작품을 처음 접하는 당시 국내 독자들에게는 텍스트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A계열본에만 해당하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곧 전술했듯이 대부분의 A계열본은 <김서상>의 曲文 전체 또는 축약 형태를 구결표기와 함께 수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²²⁾ 그런데 [A1]처럼 곡문 전체를 수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축약형으로만 수록하고 있어 과연 그것이 어떤 기능을 했을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필자가 보기에 축약표기형의 경우 대략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축약표기형은 그 자체로 감상용으로 기능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서상기》 원문과 대조해 가며 그 해석과 감상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때로는 아무런 주석 없이 곡문에 대한 구결현토 간략표기만 여러 단락 연속해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이본([A4], [A5], [A6])에 ‘西廂(記)句讀’라는 제목이 쓰이기도 한 것은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물론 부수적인 것이겠지만 이 같은 구두현토기능과 더불어서 사전적 기능으로 이용될 때 해당 단락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단락 표시 기능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곡문에 대한 축약표기조차 없이 곡문의 일련번호만 표기한 [A5]와 같은 형태가 존재하는 것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난다.²³⁾ 그러나 또 역으로 이런 단락 표시 기능은 곡문

21) B계열본에서는 “律名也”라고 쓰고 있다.

22) 구결표기 형태와 내용은 이본별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거의 대동소이하다.

23) [A5]의 경우 곡문에 대한 구결현토 간략표기 없이 곡문의 일련번호만 명기하고 있는데도 ‘西廂記句讀’라는 표제를 쓴 것으로 보아 간략표기와 일련번호가 모두 명기된 저본에서 간략표기만 생략하고 전사한 형태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의 일련번호가 명기되지 않은 이본들에서 좀 더 두드러졌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⁴⁾ 결국 [A1]처럼 곡문 전체를 구결표기와 함께 수록한 형태만이 그 자체로 자족적인 감상용 텍스트 기능을 할 수 있었을 뿐,²⁵⁾ 나머지 이본들은 모두 《서상기》 원문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보조텍스트로서 역할이 강했다고 할 것이다. 또 대부분 구두현토기능을 갖추고 그 같은 기능을 제목으로 명기하기도 한 점에서 볼 때, 그것은 중국어 구어, 속어, 방언 등이 다량 들어가 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적인 한문 독자들을 위해 제공된 기능이었다고 할 것이다. 또 이는 희곡텍스트 고유의 용어에 대한 주해들이 제공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²⁶⁾

그렇다면 B계열본에 와서는 왜 이런 구두현토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이것은 어쩌면 B계열본의 증보자가 주해를 대폭 수정증보함으로써 사전적 기능이 A계열본에 비해 크게 향상되어 굳이 더 이상 구두현토 보조기능을 탑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B계열본이 주해 내용만으로도 이미 편폭이 크게 늘어나 분량이 지나치게 느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B계열본이라고 해서 특별히 A계열본과 질적으로 다른 독자층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볼 근거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편 《염몽만석》의 주해는 원문 중의 구어, 속어, 방언, 典故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에 대한 의미풀이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간단한 한문 주석이 대부분이지만, 국한문 혼용이나 순한글의 주해도 간간이 섞

24)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이본들이 곡문에 대한 구결현토 간략표기는 위로 올려쓰기를 하고 주해들은 한 칸 내려쓰기를 해서 양자 간에 차등을 둔과 동시에 단락 구분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 B계열본의 경우 구결현토 표기가 없는 대신, 곡문 관련 주해는 위로 올려쓰고 파백 관련 주해는 한 칸 내려써서 역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일정정도 단락 구분 표시 기능을 해주는 면이 있다.

25) 참고로 [A1]의 곡문에는 다른 이본들과 달리 宮調名과 曲牌名, 唱者名까지도 모두 표기되어 있다.

26) 한편 A계열본에서는 표제어의 한자가 비교적 어려운 글자인 경우 그 한글 독음이 표기된 경우도 더러 보이는데, 이 역시 문식이 높지 않은 일반 한문독자층을 위한 정보제공 기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여있다. 한문 주석은 간혹 그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한글주석은 일부 원문 어구에 대한 간략한 한글풀이에만 활용되어 그 쓰임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주해 대상 표제어는 대체로 곡문 중의 어구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희곡텍스트에서는 곡문이 주요부분을 이루기도 하거니와 어휘 면에서도 科白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A계열본에서 작품 원문 중 곡문에 대해서만 구결현토 간략표기를 수록한 것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터이다. 표제어는 보통 1~4자의 어휘들이 주를 이루지만, 작품 원문 중의 한 구절 전체를 풀이한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런데 주해의 내용, 특히 표제어의 선정에 있어서 AB 두 계열 간에 서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A계열의 경우 표제어의 절대다수가 구어, 방언, 속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전고나 고유명사 등 일반 문어 어휘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 이에 비해서 B계열본은 구어어휘는 물론이고 A계열에는 보이지 않는 전고와 고유명사를 비롯한 일반 문어어휘가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전고에 관한 주석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그 풀이 역시 매우 길고 상세한 경우가 많다. 이런 면에서 좀 단순화시켜 본다면 A계열본이 중국어사전에 가깝다면, B계열본은 그것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한문사전적 기능과 성격을 대폭 강화한 형태라 할 수 있다.²⁷⁾

원문 어구에 대한 주석을 편의상 <驚艷>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 예로 들어 보기로 하자. 가령 '壓子息'에 대해서는 "收養子也(수양아들이다)", '好生'에 대해서는 "最也, 가장", '卻'에 대해서는 "벌서"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런 예들은 AB계열이 동일한 경우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隨喜'의 경우, A계열본에서는 "玩寺之稱(절을 구경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만 소개하고 있는 데 비해, B계열본에서는 그 뒤에 "구경하다"라는 한글 풀이를 하나 덧붙이고 있다. 또 '業冤'에 대해서 A계열본에서는 단순히 "원수"라고만 소개하고 있는 데 비해, B계열본에서는 표제어부터 '風流業冤'이라고 바꾸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猶言

27) A계열의 교집합으로서 주해들은 B계열에서도 대부분 보이나, 일부는 생략되기도 하고 일부는 표제어의 표기형태나 주해 내용에서 약간의 출입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尙冤家, 樂極之反辭, 又원수.(원수 같다는 말로, 너무 좋아서 반대로 말하는 표현이다. 한글로는 ‘원수’이다.) B계열본은 이처럼 A계열본과 공통된 표제어에 대해 풀이를 더 상세히 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A계열에는 없는 새롭게 추가된 주해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눈에 띄는 전고 소개형 주해 가운데 간략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이다. “食前方丈: 言饌食列於前者, 方一丈也. 見孟子.(食前方丈은 음식들이 앞에 차려진 것이 사방 열 자나 됨을 말한다. 《맹자》에 보인다.)” “雪牕: 梁史, 孫康家貧, 冬月映雪讀書, 後官至御史大夫.(雪牕에 관한 내용은 《양사》에 나온다. 손강이 집이 가난하여 겨울에 눈에 반사된 달빛으로 글공부를 해서 후에 벼슬이 어사대부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원문 어구에 관해서는 대략 이상과 같은 형태의 주해들로 독자들의 텍스트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간혹 엉뚱하거나 어색한 해석들이 눈에 띄기도 하여 아쉬움을 남긴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인 의미의 주석 외에 원문의 특정 대목에 대한 간략한 해설이나 평비도 이따금씩 삽입되어 있다. 《염몽만석》이 단순한 어록해가 아닌 일종의 감상사전으로서 성격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해설 및 평어들이라 할 수 있다.²⁸⁾ 먼저 해설에 해당하는 예를 역시 <驚艷> 가운데서 들어보기로 한다. 張生이 鶯鶯을 처음 만나 났을 잃고 바라보면서 鶯鶯의 말소리가 마치 “피꼬리 지지귀는 소리가 꽃밭 너머로 울려 퍼지는 듯하다(似嚶嚶鶯聲花外轉)”고 노래하는 대목(<勝葫蘆> <後>)과 관련해서 “嚶嚶鶯聲”이라는 표제어 아래 이런 해설이 달려있다. “곤 앵앵이 흥낭을 불러 ‘나는 어머니를 뵈러 간다’고 말하는 말소리를 말하는 것이다.(卽雙文喚紅娘云我看母親去之語音也.)” 이는 비유적인 곡문의 표현에 대한 일반 독자의 이해를 위한 편찬자의 친절한 보충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앞 장면에 이어 결국 앵앵이 안으로 들어간 후, 장생이 앵앵이 문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분명 자기를 한 번 돌아봤다고 노래하는 대목에 대해 이런 해설이

28) 이러한 예들은 서로 약간의 출입이 있을 뿐 기본적으로 AB계열 모두에서 사실상 일치한다.

적혀 있다. “...대개 사람들 보는 데서는 천천히 걷고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 조금 큰 걸음으로 걷는 것이 여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보이는 매우 자연스런 행태인 것이다. 그런데 장생은 멋대로 자기 생각에 따라 앵앵이 걸음걸음 마음을 전하느라 처음에는 머뭇머뭇 걸다가 마지막에 가서 큰 걸음을 내딛었다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대로라며 자랑하듯이 ‘분명 살짝 돌아봤다’고 말한 것이다... (…蓋人見處緩步，人不見處稍闊步，是女子無心中天然自然之態，而張生妄以己意謂其步步傳情始緩終闊，自誇所揣如見曰‘分明打個照面’...)” 앵앵에게 첫 눈에 푹 빠진 나머지 자기중심적인 망상에 사로잡힌 장생의 심리상태를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예들은 일반적인 어구 풀이와는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를 수 있다.

이제 평어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윗 단락 첫 번째 예에 바로 뒤이어 앵앵이 발걸음을 돌려 사라져가는 아리따운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이러한 평비가 달려있다. “이것은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순간 갑자기 눈에 띄었는데 이렇게 남이 흑심을 품고 훑어보든 말든 내버려두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림으로 그려낸 듯한 많은 장면들이 매우 뛰어나게 표현되었다. (此寫入去貌，一瞬間瞥然見，而有此儘人調戲，以下許多模畫章法甚妙.)²⁹⁾” 이는 앵앵이 처음으로 등장했다가 퇴장하기까지 장생의 시각에서 그 모습과 언행이 다각적으로 아름답게 묘사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담은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 앵앵이 사라진 후 완전히 낮을 빼앗긴 장생의 모습을 그린 <驚艷>의 마지막 대목에 관해서는 이런 평어가 적혀 있다. “이것은 완전한 무정에서 유정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허구로 기막힌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此極無情紐出有情，逗空駕出妙構來.)” 곧 앵앵은 아직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장생 홀로 첫눈에 상사병에 걸린 것으로 <서상기>라는 불후의 사랑이야기의 발단을 삼고 있음을 지적한 평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문맥에 대한 단순한 해설을 넘어서는 비평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9) B계열본은 표현상의 미세한 출입이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이상으로 소개한 두 평어는 그 구체적인 표현은 다르다 하더라도 내용상 김성탄 평비의 그것과 다소 유사성을 보인다.³⁰⁾ 앞서 소개한 해설의 경우도 첫 번째 예에서는 김성탄이 앵앵을 가리킬 때 즐겨 쓴 '쌍문'이라는 용어를 차용하고 있고, 두 번째 예의 경우 원문 마지막 부분의 “自誇所揣如見”은 김성탄의 夾批와 일치하여 그 관련성을 엿보게 해준다. 필자의 대략적인 대조 결과 《염몽만석》 중의 해설과 평어들 가운데 이처럼 김성탄 夾批와 다소간의 내용적 유사성을 엿보이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 상호 영향관계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양자가 유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김서상>의 평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아, 편찬자가 김성탄의 평어 내지 <김서상> 계열의 평어를 참고하는 가운데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차용하여 재구성하는 형태로 써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또 일부는 김성탄 평점과 이렇다 할 만한 유사성을 찾기 어려워 편찬자 자신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지만, 기타 중국본의 평어 내지 조선 주해본 중의 평어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염몽만석》 내의 이 같은 해설과 평어들은 체계성 없이 산발적으로 드러나고 전체적으로 비평적 수준이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도 없지만, 편찬자의 비평적 시각을 일정하게 드러내준과 동시에 독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비평적 읽기를 유도하는 역할을 했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 그런 점에서 당시 일반적인 한문독자들의 《서상기》 독서양태나 경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눈여겨 볼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된다.

www.kci.go.kr

30) 첫 번째 평어는 <上馬嬌> 중간의 제7절에 대한 협비의 요지와 일맥상통하고, 두 번째 평어는 <勝葫蘆> 후반부 제10절에 대한 협비 마지막 부분 및 <後庭花> 중간의 제11절에 대한 협비 일부와 취지, 표현 등이 유사하다.

4. 成書 관련 문제들

이제 여기서는 《염몽만석》의 성서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거칠게나마 재구성을 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문 <艷夢漫釋說>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서문은 편찬자가 이 책을 엮게 된 계기와 ‘艷夢’이라는 두 글자를 써서 책의 제목으로 삼은 것의 도덕적 함의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책을 엮게 된 계기에 관해서는 서문의 저자로 명기된 이른바 ‘守實過客’이 ‘儻山人’의 부탁을 받고 주해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 명칭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수실과객’과 ‘당산인’은 각각 권두에 주해자 및 교정자로 명기된 ‘수실선생’과 ‘당산주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서문에 따르면 당산주인이 수실선생에게 주해를 부탁을 한 것은 소위 ‘語錄’이 난해한 부분이 많아 보는 이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 것에 대한 평소의 안타까운 생각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어록’은 물론 《서상기》 원문 중의 각종 중국어 구어표현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 대목에서 서문의 작자가 조선인이라는 점³¹⁾과 더불어, 이 책을 엮은 목적이 《서상기》라는 난해한 텍스트에 대한 조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³²⁾ 그런데 당산주인이 평소 위와 같은 안타까운

31) 서문의 작자가 조선인이라는 것은 《염몽만석》의 기본적인 내용에서 이미 쉽게 알 수 있지만, 서문만 보았을 때는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간 知尼禪師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曼釋者惑於眞娘，破其十年功夫...” 하는 부분이 그것인데, 지족선사는 민간에서 만석중이라고도 불렸고 ‘曼釋’은 그 다양한 한자 표기방식 가운데 하나이며 眞娘은 황진이의 다른 이름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문에서 수실과객이 ‘成都’에 여행을 갔다가 당산인을 만났다는 것이나, 당산인이 “巫山巴水仙樓之上，朝雲暮雨陽臺之下”에서 수실과객을 만나 함께 《서상기》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은 이들이 본명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 것과 같은 의도로 중국 지명과 심상지리를 빌어 가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그러면서 굳이 巫山之夢의 이야기를 상기시킨 까닭이 의문으로 남으며, 이것만 봐서는 당산인이 여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32) 이 같은 편찬 취지는 현존하는 조선인의 《서상기》 주해·번역본 서발문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이에 관해서는 김효민, <朝鮮讀本《西廂記》의 異本 실태 및 유통 양상> 제3절 참고.

생각으로 인해 스스로 주해를 하고자 한 지 오래였다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는 열렬한 애독자로서 《서상기》에 대한 이해가 자못 깊은 문사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결국 수실선생에게 주해를 부탁해 《염몽만석》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아, 수실선생이 문식으로나 《서상기》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나 더 뛰어난 문사였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더욱이 당산 주인의 청을 겸양조차 없이 여유롭게 웃으며 수락하는 서문의 내용으로 보면, 편찬자는 《서상기》는 물론이고 중국 白話體 텍스트 전반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한편 서문에서는 또 《서상기》는 보는 이에 따라 淫書로 여겨지기도 하나 그 안에는 또 음란함에 대한 警戒의 깊은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염몽’이라는 명칭으로 책의 제목을 삼은 취지와 결합시켜 장황하다 할 만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서문 전체의 2/3 가량이 이 같은 경계의 뜻을 밝히는 데 할애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서문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책의 제목부터가 남녀간의 艷事를 상기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서문의 내용은 편찬자가 도학자적 평가의 시선을 의식하여 《서상기》를 위해 변론을 함과 동시에 《염몽만석》에도 도덕적 외피를 씌워 보호막으로 삼고자 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상과 같은 서문을 쓴 것만 보더라도 《염몽만석》은 단순히 편찬자의 자기만족적인 텍스트로서가 아니라 많은 독자들, 특히 중국어 구어와 희곡에 대한 이해가 얕은 일반 한문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의식적으로 만든 텍스트였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관심을 끌게 만드는 특이한 제목의 설정에도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편찬자의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또 여기에 다양한 기능과 내용적 충실함이 두루 갖춰지면서 당시 독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기에 필사본으로만 유통되면서도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한 채 오랫동안 다량으로 전해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이렇게도 서문은 주해의 실제 작업에 관해서는 “한문으로 주석하면

서 때로는 한글로 풀이하기도 했다(文以釋之, 或諺以解之)”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들이 주해작업을 하면서 어떤 기존의 성과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다. 필자는 국내에 소장된 다양한 중국본과 조선의 어록해류 및 주해본 등과 널리 대조해보았으나, 선행본으로 여겨지는 A계열본의 경우 확연한 영향관계를 엿보이는 텍스트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염몽만석》이 어떤 특정 선행 텍스트에 과도하게 기대지 않고 종합적이면서도 주체적으로 편찬된 텍스트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잠정적으로 《염몽만석》은 편찬자가 《서상기》 明代 간본과 <김서상> 계열 등 중국본은 물론이고 조선의 다양한 어록해 및 주해본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존 자료를 두루 참고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하여 이루어낸 결과물인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B계열본의 경우, A계열본을 바탕으로 수정증보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사전류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증대되는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상식적인 판단 때문이다. 또 만약 그 반대라면 A계열본이 굳이 그 풍부한 주해들을 빼거나 대폭 축약, 수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 사이사이에 곡문 원문에 대한 구결현토표기를 일일이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회의 때문이기도 하다. 이 밖에 B계열본에서 추가된 한글풀이가 필사본 <서상기어록>류와 일치하는 문제도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B계열이 선행본이라면 A계열본으로의 축약변형 주체가 한글풀이들 가운데 <서상기어록>류와 일치하는 한글풀이들만 일부러 골라서 삭제했다고 봐야 하는 셈인데 그랬을 개연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앞서 서술했듯이 B계열본의 경우 상당량의 주해를 증보하면서 한문주해는 거의 대부분 鄒聖脈의 주해를 차용하고 한글풀이는 또 대부분 필사본 <서상기어록>류의 그것을 수용했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B1]의 권두에 명기된 ‘璜谿舊漁’라는 인물은 B계열본의 수정증보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수정증보자는 일단 기존 A계열본에서 구두현토 기능을 완전히 제거하고 대신 주

해를 대폭 증보하되 상대적으로 문어 표제어를 많이 늘려 기존의 어록해로서 성격에 문어 습득 기능을 크게 보강하여 지식 습득 측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B계열본이 '염몽만석'이란 제목 외에는 A계열본에서처럼 '西廂記句讀'라든지 '語錄註解'라는 명칭을 전혀 쓰지 않은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런가 하면 해설 및 평어는 AB계열이 사실상 동일한데, 이 점은 B계열의 증보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수정증보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A계열의 기존 성과를 그대로 수용, 계승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서문도 당연히 A계열본이 처음 편찬되면서 지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이로써 보건대 B계열본은 비평자료로서의 측면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성서시기에 관해 잠시 언급하자면,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기가 어렵다. 다만 《염몽만석》의 주해가 일부 명대 간본에 출전을 두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 자체는 <김서상>의 영향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점에서 그 편찬도 기본적으로 <김서상>³³⁾이 국내에 유입된 이후, 곧 17세기 말 이후의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鄒聖脈 주해본의 경우 乾隆 47년(1782)에 처음 간행되었으므로, 그 주해를 수용한 B계열본의 출현시기는 18세기말 이후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서문에는 "...歲庚戌...是歲至月之晦守實過客題"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경술년은 이르면 1730년, 늦으면 1850년이 될 것이나, 한글 및 구결 표기에 근거하여 [A9]의 필사시기를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 무렵으로 추정한 박희숙 교수의 견해를 감안하여 1790년에 편찬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본다.

www.kci.go.kr

33) 참고로 <김서상>의 원각본인 貫華堂本은 淸 順治 13년(1656)에 최초로 간행되었다.

5. 소통적 관계의 자취

이제 본고의 논의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필사본으로만 전해진 《염몽만석》이 조선후기에 유통된 《서상기》와 관련된 수많은 ‘살아 움직이는’ 필사본 텍스트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들을 맺으며 존재했었는지를 잠시 짚어보고자 한다. 《염몽만석》을 좀 더 입체적으로 정위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다.

우선 《염몽만석》은 서로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는 여러 《서상기》 어록해들 가운데 한 그룹이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염몽만석》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유통되었던 필사본 <서상기어록>류와 일정한 내용적 관련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 미처 소개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어록해류인 《서상기소주별전》, 특히 그 頭註 부분과의 친연성도 일정정도 확인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엇볼 수 있듯이 《염몽만석》은 당시 유통되었던 다양한 어록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운동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전파된, 또 그러면서도 그 중 주목받는 텍스트였던 것으로 판단된다.³⁴⁾

그런가 하면 별도로 유통된 어록해들 외에도 《염몽만석》과의 관련성이 엿보이는 주해본들이 적지 않은데, 그 가운데 일부는 친연성이 상당히 두드러져 눈길을 끈다. 먼저 중국본의 전사본에 주해를 단 형태의 예를 들어보자면 대구 시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김서상》이 대표적이다.³⁵⁾ 김성탄 평점본의 원문을 필사하고 상란 여백에 頭註 형태로 국한문혼용 주해를 작은 글씨로 적어놓은 경우인데, 주해 가운데 《염몽만석》 A계열본의 주해와 일치 또는 유사한 것이 상당히 많아 일정한 상호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물론

34) 이 같은 《서상기》 어록해류 간의 상호관계에 관해서는 조만간 다른 지면을 통해 좀 더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35) 《第六才子書西廂記》 필사본 6권4책, 청구기호: 古822.4-왕59-春/夏/秋/冬. 嘉慶 庚申년(1800) 文盛堂 간행 번각본의 전사본.

주해 가운데는 서로 다른 것들도 꽤 있으며, 또 일부는 유사하면서도 A보다도 더 자세하기도 하여 A계열본을 바탕으로 수정증보한 형태인지 여부가 모호한 면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해 기본적으로 《염몽만석》을 적극 수용 또는 활용하여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유형의 예로 抄譯懸吐註解 형태의 《서상기》 필사본 3종을 들 수 있다. 장서각 및 단국대 울곡도서관, 서강대에 각각 소장되어 있는 《聖歎外書第六才子書》³⁶⁾가 그것인데, 이들은 사실상 그 내용이 동일한 이본들이다. 이들은 《서상기》 원문과 함께 곡문 부분만 對譯 형태로 언해하고, 夾註 또는 단락별 集註 형태로 국한문혼용 주해를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주해 가운데 《염몽만석》 A계열본과 일치, 또는 유사한 것들이 꽤 있으며, 특히 간간이 보이는 해설 또는 평어가 《염몽만석》의 그것과 일치 또는 유사하여 주목된다. 동일한 이본이 3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영향력이 있었던 이본 중 하나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이본군이 그 해설과 평어를 《염몽만석》과 일정하게 공유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흥미롭게 다가온다. 그 중 어느 쪽이 영향을 준 쪽인지 확증이 어렵지만, 양자가 유사한 예들의 경우, 초역주해본 쪽이 일종의 축약 형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염몽만석》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완역 주해본의 예를 들자면 규장각 소장 《西廂雙文傳》³⁷⁾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이 이본 역시 대역 형태로 필사하였는데, 다량의 상란 주석 가운데 《염몽만석》의 주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석이 많이 확인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염몽만석》 A계열본에만 보이는 주석과 더불어 B계열본에만 보이는 주석들도 더러 확인되어 AB계열본을 모두 참고하여 필사한 경우로 추정된다. 물론 《염몽만석》 외에도 《註解西廂記》(博文社, 1906)의 상란 주석과 일치하는 것들도 많으며, 그밖에 출처가 불분명한 다른 주석들도

36) 장서각본: 《聖歎外書第六才子書》 필사본 零本 1책(제2책 缺), 청구기호: D7C*8
 단국대본: 《聖歎外書第六才子書》 필사본 2권2책, 청구기호: 고872.4 왕982사 乾/坤
 서강대본: 《聖歎外書第六才子書》 필사본 2권2책, 청구기호: 고서 성831 v.1-2.

37) 필사본 2권2책, 청구기호: 古3461-1

섞여 있다. 필자가 보기에 《西廂雙文傳》의 주해는 필사자가 기존의 다양한 주해들을 두루 참고하여 선별 수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볼 때 이 이본은 시기적으로는 많이 늦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오히려 그 당시까지도 다양한 《서상기》 주해들이 종합적으로 활용되고 소통되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이본이기도 하다. 또 그 가운데서 《염몽만석》이 활자본 《주해서상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요 출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유통되던 다양한 주해들 가운데 《염몽만석》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는 한 보기라 할 것이다.

이상 주해본들의 예는 모두 《염몽만석》의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거의 확실하지만, 어록해류 상호 간의 선후관계 및 영향수수관계부터가 명확치 않기에 주해본들과의 관계 역시 또 다른 가능성들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주해본들을 대조하다 보면 선후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수많은 텍스트 속의 批註들 간의 관계가 난마처럼 얽혀 있는 형국이라 실태 파악에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실제로 상호 간의 친연성이 다양하게 드러난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염몽만석》이 《서상기》 독자층 내의 활발한 지적 소통의 관계망 가운데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우선 이 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6. 맺음말

이상으로 《염몽만석》의 이본 현황과 그 자료적 특징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염몽만석》은 한 마디로 조선후기 《서상기》, 특히 <김서상>을 이해하고 향유하기 위한 감상사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기능과 체계, 풍부한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서상기》 어록해류 가운데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룹으로 손꼽히며, 필사본으로만 전해졌음에도 상당히 널리 전파될 만큼의 영향력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성서시기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대략 18세기말에 출현하여 전파되다가 후에 대폭 수정증보되기도 하면서 구한말 이후까지 《서상기》 한문독자층 사이에서 꾸준히 유통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염몽만석》의 주해는 희곡적 전통이 미약했던 국내의 독자들이 중국의 희곡 텍스트를 장르적으로, 언어적으로, 내용적으로, 나아가 예술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구성한 노력이 엿보인다. 또 이 같은 다양한 층위의 기능을 가진 주해 내용은 조선후기 국내 한문 독자층의 《서상기》에 대한 깊은 관심과 독서열, 심지어 학습열을 엿보게 해준다. 대부분의 이본이 정성스럽게 필사된 편이지만, 특히 [A2]나 [B1]의 경우를 보면 하필 이렇게까지 공 들여 필사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할 만큼 《염몽만석》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진 텍스트임이 분명하다. 또 그런 점에서도 《염몽만석》은 단순하고 가벼운 《서상기》 참고서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학습서이고 교양서로서 여겨지기도 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그것은 당시 한문 독자층 내부의 《서상기》 인식과 그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할 터이다. 더욱이 기타 어록해류나 주해본들과의 다양한 소통양상까지 감안해보면, 《염몽만석》은 관련 텍스트들 간의 매우 복잡하면서도 활발한 운동적 관계망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그러한 소통적 흐름이 《서상기》 읽기와 감상을 넘어 조선 언해본들의 생성에도 일정한 밑받침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의 개괄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염몽만석》과 기타 《서상기》 관련 텍스트들 사이의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들에 대한 진일보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통해 더욱 입체적이고 풍부한 정보와 의미들이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염몽만석》의 서문과 주해 중의 평비들은 그 자체로 조선인의 《서상기》 수용 및 감상 태도를 읽을 수 있는 비평자료로서 일정한 연구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해의 한글풀이들은 조선후기의 중국어 이해 및 한글 사용 면모를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參考文獻 >

- 《新刊大字魁本全相參增奇妙註釋西廂記》(影印本), 浙江古籍出版社, 2004.
- 《貫華堂第六才子書西廂記》, 《金聖歎全集》2, 鳳凰出版社, 2008.
- 《西廂記小註別傳》(필사본), 충남대, 국민대 등 소장.
- 《註解語錄總覽》, 한남서림, 1919.
- 이가원 역주, 《서상기》, 일지사, 1974.
- 양희석 옮김, 《서상기》, 진원, 1996.
- 정용수 역주, 《(후탄선생정정주해)서상기》, 국학자료원, 2006.
- 陳旭耀, 《現存明刊《西廂記》綜錄》, 上海古籍出版社, 2007.
- 박희숙, <《艷夢漫釋》의 口訣에 대하여>, 《제효이용주박사회갑기념논문집》, 한샘, 1989.
- 김학주, <조선말엽 刊 《서상기》 註解本에 대하여>, 《모산학보》 8, 동아인문학회, 1996.
- 성호경, <한국문학의 중국회곡 수용 양상 연구>, 《省谷論叢》 31, 2000.
- 趙春寧, 《西廂記傳播研究》, 華東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1.
- 韓 梅, <김성탄 문학비평에 대한 조선후기 문인의 수용 양상>, 《비교문학》 29, 2002.
- 曹淑子, <第六才子書西廂記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정선희, <조선후기 문인들의 김성탄 評批本에 대한 독서 담론 연구>, 《동방학지》 129, 2005.
- 민관동, <《水滸志語錄》과 《西遊記語錄》 연구>, 《중국소설논총》 제29집, 2009.
- 민관동, <西廂記의 국내 유입과 판본연구>, 《중국소설논총》 제31집, 2010.
- 김효민, <朝鮮讀本 《西廂記》의 異本 실태 및 유통 양상>, 《중국어문논총》 제46집, 2010.
- 이창숙, <《서상기》의 조선 유입에 관한 소고>, 《대동문화연구》 73권, 7-31쪽, 2011.
- 윤지양, <筆寫本 <西廂記語錄>의 分類 및 各 筆寫本의 特徵 考察>, 《중어중문학》

제50집, 2011.

유춘동, <《수호전》의 국내 현존 중국판본과 어록해에 대한 연구>, 《동아인문학》, 2011.

< 中文提要 >

《西廂記》在韓國朝鮮時代要數最受歡迎的中國通俗文學作品之一。可中國戲曲對韓國讀者還是很陌生，再加上，《西廂記》中很多難懂的字語，尤其是俗語、方言，對一般的韓國“漢文”(即文言)讀者來說，又是難以理解的。因此，到了朝鮮後期產生了專為這種普通漢文讀者的多種《西廂記》“語錄解”(即一種漢語詞典)，《艷夢謾釋》就是其最有代表性的一類。簡單地說，《艷夢謾釋》就是為了閱讀和欣賞《西廂記》(特別是金聖歎評點《西廂記》)的一種鑑賞辭典。它不像朝鮮後期其他《西廂記》“語錄解”基本上只提供對詞語的簡單的解釋，而也提供對一些戲曲術語的說明、對原文的句讀“懸吐”(在原文上用韓語助詞或詞尾斷句)、對原文的補充說明及批評等多種附加功能，還有編者的序文。雖然《艷夢謾釋》不曾刊行，但至今還有十二種抄本，這一點已說明它們頗受當時讀者群的歡迎。而且從它良好的製冊狀態和多種功能及豐富內容等因素來看，從中可以窺視朝鮮後期漢文讀者群對《西廂記》的關心程度和讀書熱乃至“學習熱”。另一方面，《艷夢謾釋》的註釋在其內容上，不僅和中國本的註釋及評語有一定的影響關係，還和韓國的很多《西廂記》“語錄解”及註釋本有着或多或少的親緣關係。這種現象本身就說明，《艷夢謾釋》是在各種《西廂記》“語錄解”及註釋本之間又複雜又積極的“溝通網絡”中產生并流傳的。換言之，《艷夢謾釋》也是顯示朝鮮後期《西廂記》讀者群內積極的知識溝通現象的一個重要文本。

關鍵詞：艷夢謾釋、西廂記、語錄解、註解、異本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9. 11.	2013. 10. 27.	2013. 11. 15.	2013. 11. 26.	2013. 11. 30.